

〈토론〉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토론문

허 남 춘*

선생님께서 몇 해 전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이란 저서에서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논리가 판치던 풍토가 진정되고 제3세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히 여기면서도 이젠 진정 제4세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 하며 제주의 무가에 주목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하고도 긴요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사 속에서 탐라의 역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였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간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제주를 구비서사시의 중심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마땅히 제주인의 환호와 찬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은 제주 서사무가를 신령서사시·영웅서사시·범인서사시로 나누고 신령서사시는 원시서사시, 영웅서사시는 고대서사시, 범인서사시는 중세서사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탐라국이 망하자 건국서사시는 해체되고 마을마다의 당본풀이에 흡수되었다. 당본풀이 가운데 탐라국 유민의 향거를 보여주는 후대의 영웅서사시도 있다. 당본풀이가 아닌 일반본풀이 ‘범인서사시’가 다수 이루어져 ‘영웅서사시’의 유산을 이으면서 중세 이후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나타냈다.”고 하였는데, 세경본풀이나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같은 일반신본풀이가 중세서사시라 한 점이 의문입니다. 초공본풀이는 고구려 주몽신화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바 있고, 이공본풀이에는 부활의 신격이, 세경본풀이에는 농경신의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이들 일반신본풀이의 주인공이 영웅적 면모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신앙적 측면이나 영웅적 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모를 지닌 문맥으로 전승되다가 중세 어느 시기에 변이를 거쳐 범인들의 활약상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무가로 남겨졌다는 의미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본풀이가 일반본풀이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오해를 부를 듯합니다. “전승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일반본풀이를 당본풀이의 후대형으로 보는 선생님의 견해는 이미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화과지성사, 1997)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변이가 진행되다 중세에 완성되었으면 그것의 기원이 원시서사시라 하더라도 고대 혹은 중세서사시로 보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신본풀이의 주인공이 신이고 영웅이고 범인이기도 한 성격을 지니되, 범인의 속성이 짙게 나타나 ‘범인서사시’로 보았습니다. 1개 서사시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범인의 성격이 강하지만 범인이면서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는 신이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신본풀이 12편은 하나의 서사맥락으로 존재해, 신을 불러 즐기고 신을 보내는 과정의 총체이고, 즐기는 과정에 인간 삶의 모습(범인의 모습)이 분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듯합니다. 지역신앙성이 강한 당신본풀이보다 대중적인 일반신본풀이에 흥미 위주의 개작과 변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일반신본풀이는 農神, 門神, 産育神, 巫祖 등의 신격이 주인공인 原形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본풀이 12편은 전 지역의 모든 심방들이 알고 있는 무가이고 당본풀이는 각 지역의 메인 심방만이 아는 무가입니다. 당곳의 절차는 일반신본풀이가 불려지는 ‘큰굿’의 절차와 거의 동일한데 당신본풀이가 고행이라면 당곳에서 큰굿이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가능할까요.

덧붙여서 신령서사시를 신앙서사시와 창세서사시로 나누고, 창세서사시는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이 있다고 하였는데, 영웅서사시 중 활망본풀이와 같은 여성 영웅서사시도 고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남성 영웅 위주의 고대 건국서사시나 건국신화 이전에는 여성 영웅이 활약하는 여성 신화가 있고(선문대활망이나 안

가담할미 같은 신화, 선도산 성모나 지리산 성모와 같은 여신의 신화 - 이를 선생님께서는 『한국문학통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신화로 보셨습니다(이들 여성 신화는 건국신화의 모체가 되었고, 건국신화 속에 용해되어 남성신을 낳는 지모신적 역할로 남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았다는 모티프는 당본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그 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천국’이나 ‘백주또’가 땅에서 솟은 내력을 두고 “신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과 사람의 이중성격을 가진 최초의 영웅이 본토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땅에서 솟았다고 한 것은 계통이 다르다는 분명한 증거이다”라 하여 대부분의 신화 주인공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본토의 신화와는 달리, 제주의 신화 주인공은 계통이 다르다고 하여, 북방계가 아닌 남방계의 신화와 비교·대조를 한 후 ‘땅에서 솟아난 전승’이 제주도에서처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며, “영웅이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데 대한 반론으로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땅에서 솟아났다는 의미를 두고, 화산폭발과 같은 지형적 기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거나, 대지가 생명(신인)을 잉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래영웅은 하늘에서 하강한다거나 배를 타고 표착하는 유형을 띠는데, ‘백주또’와 같은 여성신은 땅에서 솟아난 모티프와 표착의 모티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토착영웅과 도래영웅이 모두 땅에서 솟아난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3. 가축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사냥을 하던 원주민의 생활은 후에 ‘소와 돼지를 기르는’(州胡人) 목축의 생활로 진전된 면도 있을 것이고, 이주인이 오곡종자를 들여와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에는 선생님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사시에서는 사냥을 하는 남편과 농사를 짓는 아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남편이 농

우를 잡아먹자 폭발했다고 했다. 사냥만 생업으로 하고 목축을 겸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주민의 전통을 계속 이었음을 말해준다"라 하여 '사냥을 하는 원주민'의 전통이 이어졌다고 하였는데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선, 한 시대가 수렵만으로 지속될 수는 없으니, 책에 써어 있는 것처럼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즉 오로지 수렵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수렵이 너무도 불확실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사회학적 지식을 원용한 비교신화학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생각됩니다. 마을의 기원, 혼인관계, 남녀신과 음식의 문체(米食神과肉食神) 등 비기록 표징들을 살피는 것도 신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의 당신은 크게 육식신(肉食神)과 미식신(米食神)으로 나뉘어집니다. 농우를 잡아먹은 남신은 육식신으로 숭앙됨을 의미하고, 그런 신당에는 돼지고기 등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냥을 하는 남편 - 농사를 짓는 아내'의 갈등은 사회경제사적 측면의 반영(생업이 다른 집단 사이의 오랜 갈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선생님은 "본토민 가운데 부여·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주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을라·고을라·부을라 집단이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라 하는 견해"는 부정하고, 양을라 등이 사냥을 하고 가축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원주민의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흔적은 용담동 고분에 남아 있고, 그 석곽묘 양식은 1-3세기 고구려 무덤과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1-3세기는 탐라국이 형성되는 시기였고, 양을라 등의 원주민 세력 아래에 이주민이 들어가 융합하였다는 해석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의 고인들에서는 동검과 동경 같은 지배자의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최근 삼양동 유적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요령식 동검이 출토되었고, 이것들은 고구려·부여계 지배집단의 이주를 밝히는 증거라고 여겨집니

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이주민이 제주에 들어가 지배자가 되고 탐라국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고 해야 옳을 듯하고, 그 지배자가 바로 양을라·고을라·부을라 집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은 고을라(高氏 세력)와 부을라(夫氏 세력)는 이주민이고 양을라는 토착 세력으로서 서로 연합한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양을라·고을라·부을라는 성을 사용하는 유교적 관습을 받아들인 뒤에 소급해서 만든 호칭”이라 하였습니다. 우선 주몽(고)과 혁거세(박)의 성도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건국 초기 지배족은 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5. 선생님은 켈내깃당본풀이나 송당본풀이에서 켈내깃도와 문곡성과 같은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려진 후 강남천자국에 표착하여 그곳에서 상대방 장수를 물리치고 놀라운 공적을 이룩한 후 군사들을 거느리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을 <삼성신화> 이전의 <삼성본풀이>이 지닌 문맥이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국 건국서사시>는 “채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고 하고, “탐라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백제·신라·일본·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다. 상대방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정치적 역량, 군사력, 항해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발견과 해석은 과거 탐라사에 대한 한국사의 왜곡되고 편협한 서술태도를 비판하고 본토 위주의 역사관을 불식시키는 대단한 견해로써, 『탐라국』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고대국가와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고 탐라사를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사 쪽에서 못한 일을 구비문학을 통해 문학 쪽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에는 그간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탐라사 연구를 소개합니다. 몇 개의 논문이 고대국가 건설시기인 1세기 경 탐라도 ‘國’으로서의 면

모를 지니며 서서히 고대국가 체제로 성장하였다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견해는 선생님의 이번 발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리라 봅니다.

〈1928년 산지항 축조 공사시 발견된 유물은 漢式 銅鏡 2점, 동경 장식, 五銖錢 4매, 貨泉 11매, 大泉 2매, 貨布 1매 등이었다. 오수전은 B.C.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화폐이다. 이청규 교수는 오수전이 왕망전과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원후 1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주도 고고학 연구』, 1995, pp.194-195) 이 오수전이 제주도 산지항,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들은 중국과 상당한 왕래와 교역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 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4, 제주도연구회, 1987, p.33) 계속해서 전경수 교수는 제주도를 한반도 국가에 편입된 하위단위로 간주해 온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고대 제주도 역사기술을 한반도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상고 탐라를 동아시아 또는 동지나 해양문화권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영일 교수는 중국 화폐가 발견된 지역에서의 교역은 반드시 중국 상인들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탐라인들도 中韓을 다니며 교역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반도 다른 지역을 다니며 장사를 했고, 산지항은 국제 교역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은 기증무역의 성격이었고, 화폐는 수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威信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삼국지』·『삼국사기』의 「주호」·「탐라국」 연구, 『인문학연구』 제 6집, 제주대, pp.160-167) 이 산지항 무역의 존재로부터 고대 탐라에 이런 무역을 관리하는 사회계층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수장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장사회(chiefdom)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제주도사연구회, 1994, p.39-